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동…골목상권 ‘찬물’

법원 영업제한 위법 판결 파장…전국 11곳 소송중

중소상인 반발 “조례보다 법으로 규제 강화해야”

지난 22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일 지정과 약간영업을 금지한 지자체의 조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송파·강동구는 판결문이 도착하면 면밀한 내용 분석과 법률 지문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장을

밝혔고, 전국 11곳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관련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24일 광주시와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유통업체들 중에서 관련소송을 진행

중인 곳은 없으며, 서울 강동·송파구의 관계문을 살펴본 뒤 지역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내 대형마트들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역 정서와 사회적인 분위기상 소송을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대형마트들이 개별 매장에 대한 영업제한을 풀려면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 강동·송파구 내 롯데쇼핑, 이마트, 휠플러스, GS리테일 등

41개 유통업체는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질 때 까지 의무휴업에 상관없이 정상 영업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송파구청이 영업제한의 처분을 하기 전에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대

형마트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권한은 지방의회가 아닌 지자체장에게 있는데 해당 조례가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차권과 지역 중소상인들

은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려 제도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이번 판결은 조례 제정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결로, 법원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조례를 맡길 것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해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중소상인들도 “대형 마트와 SSM에 대한 협력 및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 종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휴업과 영업 시간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고령화, 금융위기 불러올 수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24일 “인구 5천만명 시대와 인구보너스의 소멸” 보고서에서 “196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는 ‘인구보너스’ 즉 생산기능인구의 비중이 2012년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3년부터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 가 생산기능인구로 진입하면서 생산기능인구의 비중이 54.9%(1970년)에서 68.6%(1989년)으로 급등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9.3%에 달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생산기능인구 비중이 2012년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3년부터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光銀 건강 직장문화 정착 ‘탁구대회’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오전 광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노동조합제37주년을 기념하는 ‘제25회 위원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해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학회장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송기진 행장과 비롯한 경영진과 이상재 노동조합위원장 및 각

부서 및 영업점별 총 149개팀 596명의 광주은행 임직원 1500여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한편 이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 결과 전남 영업부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검사부가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



23일 광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노동조합 제37주년 기념 제25회 위원장기 탁구대회에서 송기진 행장(왼쪽)과 이상재 노동조합위원장이 게임을 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 클립도 의무휴업 동참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24일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가 광주시 광산구 농협광주농수산물유통센터(하나로클립 수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제공

지역 중소상인 성명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광주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커졌다.

24일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등 지역 중소상인들이 광주시 광산구 농협광주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클립 수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광주농수산물유통센터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립도 예외 대상으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립은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의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 대상에 서 제외됐다.

김종재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농협 하나로클립과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하나로클립이 농수축산물을 주로 판매한다면 가공식품과 의류, 기타 생활용품까지 취급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마트와 달라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미기자 emlee@kwangju.co.kr

K-컨슈머리포트 이름 공모

올해 3월 국내에 처음 선보인 한국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K-컨슈머리포트)가 새 이름을 공모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동개최위원회는 22일 “K-컨슈머리포트”가 명실 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비자 가격정보가 될 수 있게 하려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히 순 우리말이 포함되면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1명이 2개 이름까지 가능하다. 문의 02-3460-3353, 3354.

/연합뉴스

▶ 농협 하나로 클립도 의무휴업 동참을

▶